

唐門

불기 2567(2023)년
가을호
통권 제165호
唐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높은 가을 하늘만큼 나의 신심도 높아지기를. / 치문반 해인
- ▣ 가을 물로 형형색색으로 익어가는 호거산을 보며, 다시금 내 마음 들여다본다. / 치문반 정견
- ▣ 욕심을 버리고 점점 익어가는 내가 되길 / 치문반 진정
- ▣ 내리는 비에 가을이 내려앉으니... 내 마음도 함께 차분해지기를 / 사집반 서현
- ▣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어디서 찾고 있느냐? / 사집반 덕유
- ▣ 높고 푸른 가을마음 / 사집반 혜석
- ▣ 숙처방교생熟處放敎生 생처방교숙生處放敎熟의 계절, 가을 / 사집반 공림
- ▣ 인지이도因地而倒 인지이기因地而起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 사교반 혜성
- ▣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화엄반 천진
- ▣ 세간을 여의어도, 법계에 들어가도 언제나 바로 그 자리, 가을 / 화엄반 영원
- ▣ 가을바람 어디로 가는가? / 화엄반 원경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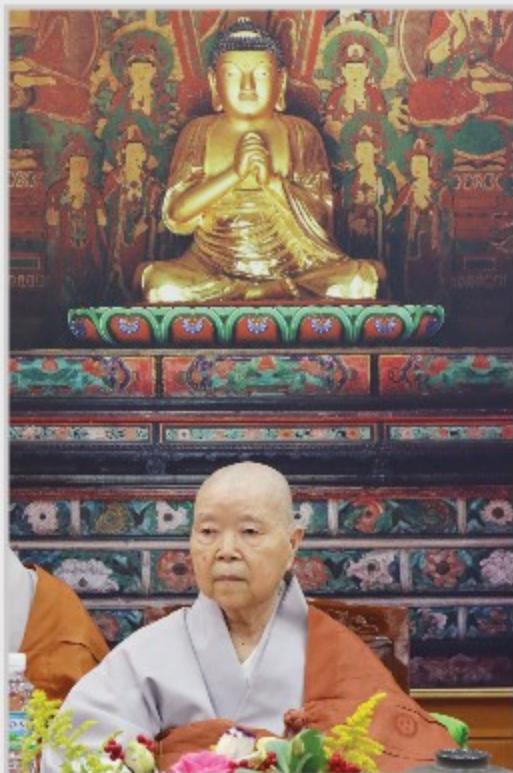
목차

- | | |
|-------------------|--|
| 02 호거산 문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죽림현 | 승만부인의 열 가지 원력 명성 |
|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모든 것 동우 |
| 08 교수논단 | 頓漸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③
- 知訥의 頓悟漸修를 중심으로 - 진광 |
| 13 想 | 유희삼매 혜산 |
| 14 화랑동산 | '운문사 역사문화관' & '운문사 goods' 세광 |
| 16 학인논단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②
-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 중심으로 독해하기 - 전하 |
| 19 풍경소리 | 我 혜난향 |
| 20 선지식 탐방 | 출가는 곧 발심
- 반야암 지안 큰스님을 찾아뵙고 - 혜견 |
| 25 외부기고 | 인도에서 봤었던 세 분 현진 |
|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여름 법화삼매 해목 |
| 32 운문, 운문인 | 우리 마음도 청운추월晴雲秋月처럼 편집부 |
| 34 자유기고1 |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을 축하하며 경운 |
| 36 수행의 두레박 둘 |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해인 |
| 38 자유기고2 | 생生과 사死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태감 |
| 42 차례법문 | 절대성과 상대성, 양변을 여원 중도로서의 계율 영원 |
| 46 이 한 권의 책 | 두려워하지 않는 힘
- 힘이 필요할 때 읽는 스님의 문장 - 제법 |
| 48 운문논평 | 흔탁한 세상을 바라보며 편집부 |
| 50 운문소식 | |
| 51 등불 | 조사전 다례제 |



승만부인의 열 가지 원력

명성 / 운문사 회주



오늘은 학인 스님들께 승만부인의 열 가지 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만부인은 급고독장자와 함께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드린 기타태자의 누이동생이자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의 딸이며, 아유타국 우칭왕의 왕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만경』의 경명經名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입니다.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으로부터 불법에 귀의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

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보광여래’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당당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대승경전이지요.

자! 그럼 승만부인의 열 가지 원력을 살펴봅시다.

마치 하늘의 달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달그림자를 비추는 것과 같이 (...) 승만은 열 가지 큰 원력을 세웠으니,

첫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하여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둘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모든 어른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셋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넷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외로워 의지할 데 없거나 구금을 당했거나 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 중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도와 편안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연후에 떠나겠습니다.

다섯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바쁜 법 깊이 새겨 끝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남의 잘생긴 용모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값 비싼 패물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제 몸이나 제 소유물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지 않고 가난하고 외로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모으겠습니다.

아홉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보시와 부드러운 말과 이로운 행과 처지를 같이하는 일 등으로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열째 세zon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살아 있는 짐승을 가두어 기르거나 계를 범하는 것을 보면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타이르고 거두어 나쁜 일을 고치도록 선도하겠습니다.

승만부인의 서원은 대승보살로서의 자비심과 섬세함으로 불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불법을 실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만부인의 열 가지 서원을 우리 학인 스님들은 마음에 잘 간직하여 우리 모두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환하게 빛나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합시다. ☽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모든 것

동우 / 운문승가대학 부교수



출가 전 한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랬다. 그래서 무엇인가 꽉 되어버릴 것 같다 싶으면 도망치려 했다. 물론 사변철학에 끌려 산 짚은 시절의 몽상이자 저항의 하나였을 게다. 출가 후 처음 시내 거리를 거닐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다고 엄살 부리던 사람이 누가 보아도 분명한 '무엇'인 모양새를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은가. 어처구니없는 반전이군. 그러자니 문득 반문해본다.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

땅을 의지해 농사를 짓는 이를 농부라 하고,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이를 의사라 하며, 음식을 만드는 이를 요리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이를 유튜버라 하는 등 세상에는 하는 일로 인해 이름지어진 직업들이 참으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출가자, '스님'이라 이름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도하고 간경·참선하는 한편 농사를 짓기도 하고 환자도 만나고 요리도 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등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러나 세간의 사람들처럼 하는 일에 따라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

탁발하러 나선 부처님께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런 후 공양을 드시오.”라는 바라문의 말에 부처님께서 답하신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요, 지혜는 내가 밭을 가는 쟁기이며, 신구의 악업을 제어하는 것은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라네. 정진은 내가 부리는 소로서 나아가 물러서지 않으며 행하여 슬퍼함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데려간다오.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

둔다네.”

어떤 노동이 이토록 심오하고 추상적이며 아름답겠는가. 그러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 과정은 어떻게 기능될 것이며, 또 어떠한 일상이 이 말에 떳떳할 것인가. 더없이 고귀하지만 하찮고, 처절하지만 시시하기 짹이 없는 이 자리멸렬한 자신과의 싸움은 또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할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라문이 감동하여 공양을 올리고 출가하였다는 것이 이 이야 기의 결말이다. 이러한 바라문의 태도가 새삼스럽다. ‘말은 그럴듯하군!’이라는 냉소나 불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계의 문제점에 대해 열렬히 성토하는 법륜 스님께서 서암 큰스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누가 중이고 어디가 절이며 무엇이 불교인지 답해준 이 단순한 말씀이 요사이 마음에 사무친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무엇이 되어버리지 않는 수행자는 그 어떤 일을 하여도 다 맞거나 혹은 다 틀린다. 맞고 틀리는 기준이 그 일의 종류나 완성도에 달려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자는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이 되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잣대 하나가 수행자의 목숨이니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싫증 잘 내던 내가 25년이 넘도록 이 길을 한 번의 후회도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어찌면 출가자의 길이 무엇이 콕 되어버리는 고정적 삶이 아니라 늘 되어가는 도중의 사람이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출가의 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은 유연하고 광대한 자유의 말인 것 같다. 경전에 무량無量의 뜻은 무상無相으로부터 나왔다 하지 않았던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래서 수행자의 삶은 위대하지만 자취가 없는 것일까.

출가자로서 인연 따라 무엇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서 때때로 두렵기도 하다. 마음 밭을 일구고 스스로를 청정히 하는, 보이지 않지만 더없이 고귀한 노동을 계율리한 채 논두렁이 아닌 고대광실에 살며 밖으로만 그럴듯한 무엇이 되어버릴까 봐 때때로 부끄럽고 가끔씩 두렵다.

그러자니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꿈꾸던 젊은 날의 꿩상을 소환시켜 다시 새롭게 담금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꿈속에서 또 꿈을 꿔 보는 것이다. 『

頓漸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③

- 知訥의 頓悟漸修를 중심으로 -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頓漸의 개념과 전개
3. 징관과 종밀의 돈점론 비교
4.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성립
5. 나오는 말



4.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성립

지눌은 12, 3세기 정치적으로 혼란한 고려불교 속에서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고, 선교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민한 것이 바로 수심修心에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수심불교修心佛教에 의해서만 정법正法이 구현될

수 있으며, 마음 닦는 일을 계을리할 때 불교는 정법에서 멀어져 쓸데없는 시비에 떨어진다고 보았다.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과 그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수심修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깨침과 닦음이다. 깨침과 닦음에 관한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돈오점수 사상이다. 지눌에 의하면 올바른 수심의 길은 먼저 깨치고, 그 깨침에 의거하여 점차로 닦아 나간다는 선오후수先悟後修이다. 지눌은 돈오점수에 대해 『절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돈오는 범부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대를 오인해서 몸으로 삼고 망상을 마음으로 삼아서 我라고 오인하다가 만약 선지식을 만나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은 불변不變 · 수연隨緣 · 성상性相 · 체용體用의 뜻을 설해 주면 문득 영명한 지견(성품)이 자기의 참마음임을 훌연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마음이 항상 고요해서 끝이 없고 상성이 없는 곧 법신이며, '참 나[眞我]'는 신심이 둘이 아니어서 모든 부처님과 텔끝만치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돈頓이라고 한다.²⁷⁾

돈오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에 눈뜸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다. 그것은 '일념회광一念迴光' 이란 자기 존재에 대한 돌이킴으로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나, 참마음의 실상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부처'라는 말은 어둠[迷]으로부터 밝음[明]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마치 꿈에 감옥에 갇힌 관리가 가지가지로 근심하고 고통받다가 어떤 사람이 불러서 깨워주면 단번에 꿈을 깨는 것과 같아서 자기 몸이 본래 안락하고 부귀하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지눌에게 있어서 돈오는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本性의 깨달음이다. 신심불이身心不二의 차원에서 얻어진 전인적全人的 전회轉迴이다. 선수후오先修後悟인 증오證悟보다도 선오후수先悟後修인 해오解悟를 더 높이 평가하고 돈오점수설을 선택한 것은 깨달음을 얻은 뒤 끝없는 닦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해오가 없이 그저 닦기만 한다고 참된 수행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²⁸⁾. ‘심즉불心即佛’이라는 사실을 돈오했으면 수심修心을 마친 것인가? 지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돈오를 기본으로 점차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점수이다. 깨쳤으면 그만이지 왜 점수가 필요한가? 지눌에 의하면 깨치기 전 오랫동안 익혀 온 나쁜 습기는 즉시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점수는 비록 법신과 진심이 온전히 부처와 같음을 돈오했지만 오랜 세월 사대四大로 아我를 삼아 허망하게 집착하였기 때문에 익혀져서 성을 이루어 마침내 단박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의지하여 점점 닦아서 점점 끊어서 더 이상 끊을 것이 없는데 이르면 성불이

다. 이 마음 밖에 부처 가히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비록 점차로 닦는다고 했지만 이미 번뇌가 본래 없고 심성이 본래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음이 없이 끊고, 선을 닦되 닦음이 없이 닦는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닦음과 끊음이 된다.²⁹⁾

다시 말해 문득 부처와 더불어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시습기無始習氣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을 의지해서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깨달은 그 자리에서 분별시비를 떠나서 닦는 이것이 바로 무념수無念修요, 무염오수행無染污修行이다.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는 선오후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먼저 깨닫고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연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햇빛에 열을 받아야 녹는 것처럼 법부가 곧 부처인 줄은 깨달았으나 법력을 의지하여 훈습으로 닦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다.³⁰⁾

돈오가 자기 존재의 실상에 대한 눈뜸이요, 앎이라면 점수는 그 앎이 생활 속에 일여하게 되

27) 「절묘」, 법륜사 판, pp. 29~30.

“頓悟者 請無始迷倒 認此四大爲身 妄想爲心 通認爲我 若遇善友 為說如上不對緣性相體用之義 忽悟靈明知見 是自真心 心本恒寂 無過無相 即是法身 身心不二 是爲真我 即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也”

28) 金浩星, 「頓悟新修의 새로운 解釋」, 『韓國佛敎學』 제15집, (한국불교학회, 1990), p.435참조.

29) 「절묘」, 법륜사 판, p. 33.

“漸修者 跡頓悟法身眞心 全同諸佛 而多劫妄執四大爲我 習與成性 卒難頓除故 須依悟漸修 損之又損 乃至無損 即名成佛 非此心外 有佛可成也 然雖漸修 由先已悟煩惱本空 心性本淨故 於惡斷 斷而無斷 於善修 修而無修 為真修斷矣”

30) 위의 책, “先悟後修之義曰 識水池全水 借陽氣以消溶 悟凡夫而即佛 實法力以熏修”

는 실천과정이요, 닦음이다. 즉, 돈오가 미迷에서 오悟로의 전환이라면, 점수는 범인이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깨닫고 나서 점차 닦아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눌은 수증돈점修證頓漸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돈오점수라고 설한다. 이것이 바로 정혜쌍수설定慧雙修說로 정립된다. 즉 지눌 사상의 근간은 정혜쌍수설과 돈오점수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혜쌍수설은 점수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즉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조용하게 하는 선정을 의미하고, 혜는 사물을 여실하게 보는 지혜이다. 다시 말해 定은 마음의 공적空寂한 본체, 즉 근본지를 가리키며, 혜慧란 마음의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靈知의 작용을 말한다.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정과 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심의 실제에 있어서 정定에만 치우치면 혼침에 떨어지기 쉽고, 혜慧에만 치우치면 산란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정과 혜를 함께 닦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혜쌍수설의 요점이다.³¹⁾

그는 또 깨친 다음의 점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타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후悟後에 점수漸修의 문문은 다만 더러움을 닦는 것 만이 아니요, 다시 만행을 겸해 닦아 자타를 아울러 구제하는 것이다. 이어서 지눌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요즘 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말하기를,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이타의 행원이 저절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여 나와

너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때 비원悲願을 발하지 않으며 적정寂靜에 막혀 있을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화엄론에 이르기를 지성智性은 적정하므로 원력願力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비록 뜻은 있어도 역량이 달려 그 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차별지로서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대비원을 발하여 힘과 능력을 따라 보살도를 닦으면 깨달음과 행이 원만해질 것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³²⁾

여기서 지눌의 깨달은 후에 닦음이 고요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익케 하는 보살행을 겸하는 실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타행은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건지려는 자비행이며, 이는 모든 근기의 사람에게 두루 통하는 실천이며 닦음이다.

이상으로 대략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상은 간화선 사상과 선교일치 사상을 들 수 있다. 지눌의 수행문 중 하나인 경절문徑截門은 간화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지혜知解의 장애를 떨쳐버리기 위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다. 경절문은 간화선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임제종의 대혜종고(1088~1163)의 영향을 볼 수 있으며, 지눌은 수행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각기 다른 방편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선교일치 사상은 지눌이 당시 선과 교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보문사에서 3년간이나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화엄경』을 통하여 선교가 계합하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그 후 이통현의 『화엄론』을 읽으면서 더욱

선교가 하나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 드디어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가 입으로 말한 것은 교敎요,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은 선禪이다. 부처와 조사의 마음과 입은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인데, 어찌 그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기 제가 익힌 데에 편안히 안주하여 허망하게 논쟁함으로써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³³⁾

선은 부처님의 마음(佛心)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佛語)이다. 마음과 말이 분리될 수 없듯이 선과 교도 둘일 수 없다. 이것이 지눌의 선교일치사상이다. 그가 돈오점수를 강조한 것도 선과 교를 하나로 융화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5. 나오는 말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깨달음'과 '닦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미 지눌을 논하지 않고서는 한국불교를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것이라면 지눌은 자신이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든 크게 누가 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실상론(本體論)과 현상론의 입장에서 각각 이해를 한다면 돈오점수이든 돈오점수이든 논쟁거리가 될만한 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승도 없이 외로운 수행과 여러 경전의 도움으로 수차례의 전환기를 거치며 정혜결사를 완성했던 지눌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들에게 제시하는 수행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지눌은 돈오점수를 방편으로 한 수행공동체 정혜결사를 창설해 당시 불교계의 세속적 타락을 막고 선과 교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은 불교계를 전반적으로 타락시키는 많은 승려들에게 근본적 반성을 촉구했다.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오염되어 타락한 불교계를 바로 잡아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고, 선·교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은 그 당시 고려불교의 과제였다. 이런 과제가 지눌이 제창한 정혜결사 운동으로 인해 극복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선과 교, 깨달음(頓悟)과 닦음(漸修)을 하나로 본 회통적인 선의 전통을 이 땅에 뿌리내린 지눌의 사상은 외래사상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를 남긴다. 또 깨달음과 닦음을 통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교훈이 된다고 생

31) 강건기, 「보조사상의 현대적 의미」, 『普照思想』 제 2집(普照思想研究所, 1988), pp. 13~17참조.

32) 『절요』, 法輪社 版, p. 81.

"今時禪者 皆云但明見佛性然後 利他行願 自然成滿 牧牛子 以謂非然也 明見佛性 則但生佛平等 彼我無差 若不發悲願 恐滯寂靜 華嚴論 云智性寂靜 以顯防智是也 故知 悟前惑地 雖有志願 心力昧略故 空不成立 悟解後 以差別智 觀衆生苦 發悲願心 隨力隨分 行菩薩道 費行漸圓 竝不廢快哉"

33) 知訥, 『華嚴論節要』序文, 金知見 編, p. 2.

각된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이러한 사상들을 통해 현실통찰의 지혜와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아

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실적, 구체적인 실천행을 닦아나갈 때 참으로 돈오점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⁵⁾

〈 규봉과 징관의 돈점설 〉

번호	구 분	규봉스님의 돈점설(선원제전집도서)							
1	別一對	頓悟漸修 (無念修·辦事修)		解悟	先悟後修	上根凡夫			
					日出霜消(圓寂障) 孩生·孩長(成德) 猛風頓息·波浪漸停				
2	漸三對	漸修頓悟		證悟	先修後悟	中下根機			
					伐木入都				
3		頓修漸悟		證悟		學射			
4		漸修漸悟		證悟		登九層臺			
5	頓三對	頓悟頓修 (頓悟頓修) (因悟而修)		解悟	上上根機 (緣熟菩薩)	〈頓三對〉 斷障 : 新一綴結 萬條頓斷			
6		先修後悟 (頓修頓悟) (因修而悟)		證悟		成德 : 染一綴結 萬條頓色			
7		修悟一時		解悟		大夢을 깨에 단박 꿈을 깨어서 꿈이 물록 없어짐과 같다.			
※		本具一切佛德 一念具足十度萬行		解悟 證悟		※			
						※			
번호	구 분	징관스님의 돈점설(화엄경 행원품소)							
1	漸三對	頓悟漸修		中下根機	先悟後修	頓悟 : 日出 漸修 : 磨鏡			
		漸修頓悟				頓悟 : 鏡明			
		※			先修後悟	※			
		漸修漸悟				登九層臺			
3	頓三對 (3義)	頓悟頓修 (頓悟頓修) (因悟而修)		解悟	上根凡夫 (宿世緣熟菩薩)	頓悟 : 廉然頓了 頓修 : 不染纏然合道			
4		先修後悟 (頓修頓悟) (因修而悟)		證悟		頓修 : 服藥 頓悟 : 病除			
5		修悟一時		解·證悟	先修後悟	無心忘照(明鏡) 任運寂知			
7		本具一切佛德 一念具足十度萬行		解·證悟	宿世上根利智	悟 : 饮大海水 修 : 得百千味			
						※			



사미니과(한화년) 혜산



‘운문사 역사문화관’ & ‘운문사 goods’

세광 / 운문사승가대학 사서

한동안 뜼했던 공사 소리가 요즘 운문사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운문사는 공사 중’ 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50여 년 동안 항상 불사가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명성 회주 스님께서 53년 주석하시는 동안 40동의 신축과 10여 동의 보수가 있었고 스님 이후로 일곱 분의 주지 스님들 또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운문사가 10여 년 추진하고 있던 박물관 건립 사업이 ‘운문사 역사문화관’ 이란 이름으로 드디어 올 5월 11일에 착공했다. 내년 5월 말쯤 완공을 목표로 하루하루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사중 소임자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다. 국가보조와 자부담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어른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나 또한 이 사실을 모르지 않고 대중의 일원이기에 이는 내 일이기도 하다.

나도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야겠다 싶어서 아이템을 찾다가 4개월 전부터 운문사 굿즈(기념품)를 연구제작 중이다. 운문사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순례객들로 도량을 메운다. 어른 스님께서는 매일 도량 곳곳을 돌아보시고 사리암 망배를 다녀오시는데, 주차장에 가득 차 있는 차들을 보시고 “아이고, 저 차들 좀 봐요. 오늘도 일찍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운문사에 많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시며 흐뭇해하시는 표정이다.

사실 스님께서는 상주하는 대중 스님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50여 년 동안 도량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50년의 정성이 쌓인 운문사는 그대로 극락세계다. 봄이면 벚꽃길, 가을이면 단풍 명소, 사리암까지 진달래의 사열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솔바람길, 천연기념물 제180호인



500세 쳐진소나무, 450세 은행나무, 장수의 상징 돌 거북이, 비로자나 부처님, 작압전 등 많은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운문사는 또한 일연 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하셨고 원광 국사께서 화랑5계를 전했던 역사 깊은 전통 사찰이다.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귀함을 모른 채 사계절을 보내는 나에게 ‘운문사 역사문화관’ 이란 명칭은 잠자고 있던 세포를 깨웠다. 어쩌면 운문사를 다녀간 많은 분들은 운문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늦었지만 나도 운문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운문사가 담고 있는 보물들을 다양한 기념품으로 소장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굿즈 제작을 마음먹은 것이다. 4개월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희미하게나마 노선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른 스님께서 공부하고 계실 때 나는 옆에서 스님의 서재를 어지럽히며 굿즈를 제작하고 있다. 어지러운 현장을 보시고도 묵묵히 눈을 감아주시고, 가끔은 물어주신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팔렸어요?” 출력물을 보시고 “이런 걸 스님들이 사갈까?” “아니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종종 오간다. 그럴 때마다 어른 스님의 관심이 기쁘고 고맙다. 오직 좋은 의지 하나만으로 시작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나 스스로도 궁금하다.

그러나 알고 있다. ‘운문사 역사문화관’은 불보살님들과 나반존자님께서 다 돌봐주시리라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이 불보살님들 눈에는 가상하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일방적인 것은 없다. 벌써 사중에선 사중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주문이 폭주해서 ‘저 혼자 도저히 감당 불가입니다. 도와 주세요!’라는 즐거운 비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②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중심으로 독해하기 -

진하 / 대교과(4학년)

목 차

1. 들어가며

2. 독해에 앞선 개론적 이해

- 2-1. 『화엄경華嚴經』 및 「아마궁중계찬품
夜摩宮中偈讚品」
- 2-2. 청량정관清涼澄觀과 「화엄경청량소」

3. 「화엄경청량소」를 통한 ‘유심계唯心偈’
독해

4. 나가며

3.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의 ‘유 심계唯心偈’ 독해

3-1. 각림보살 계송 번역

『화엄경華嚴經』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에 등장하는 총 10보살의 계송 중 9번째로 설해진 각림覺林보살의 계송은 ‘유심계唯心偈’라고도 불린다.¹⁾ 청량정관清涼澄觀은 각림보살의 이름을 ‘마음의 본말을 비추어 본 자’라고 해석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각림보살의 10개 계송이 ‘구분유식具分唯識’²⁾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정관은 전체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의 각 5개 계송으로 나눠, 전반의 5계송은 “비유를 들어 법을 나타낸다(約喻顯法)”고 하였고 후반부 5계송은 “법에 대응하여 관을 이루게 한다(法合成觀)”는 관점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①~⑤의 전반부 계송과 ⑥~⑩의 후반부 계송을 나누어 상호보완과 심화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각림보살계 전체 계송에 관한 청량정관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① 譬如工畫師 / 分布諸彩色 / 虛妄取異相 /
大種³⁾無差別 비유하자면 마치 그림 그리는 화
가가 / 여러 가지 색을 칠하여 / 허망하게 여러 모
양 그리지만 / 대종大種은 차별이 없다.

② 大種中無色 / 色中無大種 / 亦不離大種 /
而有色可得 대종 가운데 색이 없고 / 색 가운데
대종이 없지만 / 그러나 또한 대종을 떠나서 / 색
을 가히 찾을 수는 없다.

③ 心中無彩畫 / 彩畫中無心 / 然不離於心 /
有彩畫可得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 가히 그



림을 그릴 수 없다.

④ 彼心恒不住 / 無量難思議 / 示現一切色 /
各各不相知 저 마음이 항상 머무르지 않아서 /
헤아릴 수 없고 사유하기 어려우니 / 일체 색을
나타내지만 / 각각 서로 알지 못하도다.

⑤ 譬如工畫師 / 不能知自心 / 而由心故畫 /
諸法性如是 비유하자면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
가 /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 마음을 말미
암아 짐짓 그림을 그리나니 / 모든 법의 성품도
이와 같음이라.

⑥ 心如工畫師 / 能畫諸世間 / 五蘊悉從生 /
無法而不造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 오온이 다 마음 따라 생기어서 / 법
을 짓지 않음이 없네.

⑦ 如心佛亦爾 / 如佛衆生然 / 應知佛與心 /
體性皆無盡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 불과 심이 그 체
성이 모두 다함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⑧ 若人知心行 / 普造諸世間 / 是人即見佛 /
了佛眞實性 만약 사람이 마음 쓰는 것으로 / 널
리 모든 세간을 짓는 줄을 안다면 / 이 사람은 곧
부처를 보아 / 부처님의 진실성을 알게 되리라.

⑨ 心不住於身 / 身亦不住心 / 而能作佛事 /
自在未曾有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않고 / 몸도 마
음에 머물지 않지만 / 그러나 능히 불사佛事를 지
어 / 자재함이 미증유未曾有라.

⑩ 若人欲了知 / 三世一切佛 / 應觀法界性 /
一切唯心造 만약 어떤 사람이 / 삼세의 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 옹당히 법계의 성품이 /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고 관해야 한다.

3-2. 앞의 다섯 계송 : 약유현법約喻顯 法 - 비유를 들어 법을 나타낸다

① 청량정관은 첫 계송에서 마음의 구조를
비유로 드러낸 것으로 설명한다. 제1구에서 화가
는 '일심一心'에 비유하고 이후 제2, 3, 4구를 통
해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의 유식3성三
성의 비유로써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즉, 제2구
에서 '채색彩色'의 비유는 세상 모든 것은 연기
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타기성依他起性으로, 제3
구의 '이상異相'은 의타기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
에서 분별경계에 빠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으
로 비유하였고, 제4구에서 '대종大種'은 일체의
경계에서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요달함으로
써 본래 차별이 없음을 알아차린 원성실성圓成
實性에 비유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목을 설명
하는 데 있어 청량정관은 여래장 계열의 「기신
론」과 「능가경」을 주로 인용한다. 또 법상유식의
삼성설을 인용하되 여래장을 배경으로 한 측면
에서 서술하고 있다.

1) 實叉難陀 한역, 20.「夜摩宮中偈讚品」, 『大方廣佛華嚴經』80권본 K.80

2) 구분유식眞分唯識에 대한 정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이란 불생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므로, 아뢰아식이 라고 한다. 생멸과 불생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생멸이란 곧 여래장이며, 앞의 유심의 진과 망을 구별하는 가운데 진심에 통한다. 만약 온전하게 진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事가 理를 의지하기 않기 때문이다. 오직 생멸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真分이라 할 수 없다” 言眞分者, 以不生滅與生滅 和合非一非異名阿賴耶識, 即是眞分, 以具有生滅不生滅故, 不生滅即如來藏, 即會前唯心真妄別中即通真心也。若不全依真心, 事不依理故, 唯約生滅, 便非眞分。(清涼澄觀,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卷第十, 36, p.73b~c)

3) 대종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수화풍 그대로를 의미하지만 아비달마 입장에서 보면 현상적인 자연계를 구성하고 성립시키는 근원적인 요소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대승 유식에 의하면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포함된다.(“대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불교대사람』, p.652)

② 청량정관은 ②번 계송의 제1, 2구에서 진眞과 망妄이 즉하지 않으면서[不即], 서로 여의지 않는[不離] 이치를, 망이 진을 의지하기 때문에 능소能所가 다르며 성性으로 보면 차별이 있으나 상相이 같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가假는 반드시 실實에 의지하여 드러나고, 망도 반드시 진을 의지하여 일어나니 성性과 상相이 서로 사무쳐서 함께한다는 불리不離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다. 다만 망은 진을 의지하여 일어나되, 그 반대의 경우 '진眞이 꼭 망을 의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함께 밝히고 있다.

청량정관은 ①, ②번 계송이 '진과 망이 의지하는[眞妄依持]' 진여문眞如門이며, '대종 가운데 색이 없고 색 가운데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또한 대종을 떠나서 색을 가히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은 『기신론』을 의거하여 진여문의 체가 일체법을 섭수한다고 보았다. 반면 뒤에 나오는 3개 계송은 유식의 심생멸문心生滅門에 입각하여 설해진 내용이라고 보았다.

③ 마음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마음과 경계가 즉即하지도 여의지도 않는 상태를 밝힌 계송으로, 제1, 2구는 즉하지 않음을, 제3, 4구는 여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즉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식의 견분見分과 상분相分,

능변能變과 소변所變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여의지 않는 이유로는 '마음을 떠나서는 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처럼 즉 경계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량정관은 ④번 계송을 능변과 소변의 행상行相에 대한 비유로서 '화가의 능숙한 생각이 머무름 없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려낸 것[能畫]이 그려진 바[所畫]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힌다고 보았다.⁴⁾ 제1구에서 '저 마음[彼心]' 이란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으로 『기신론』의 불생멸과 생멸이 화합한 아뢰야식⁵⁾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관은 『성유식론成唯識論』을 인용하여 이후 구절과 의미를 대응시킨다.⁶⁾ 한편 제1구의 '향부주恒不住'는 '무주無住', 곧 실상實相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성종 우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⁷⁾

⑤번 계송에서는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알지 못함[不能知]'을 비유하며, 마음과 경계가 무자성無自性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을 말미암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중생이 경계가 곧 마음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허망한 경계[妄境]를 따라가는 점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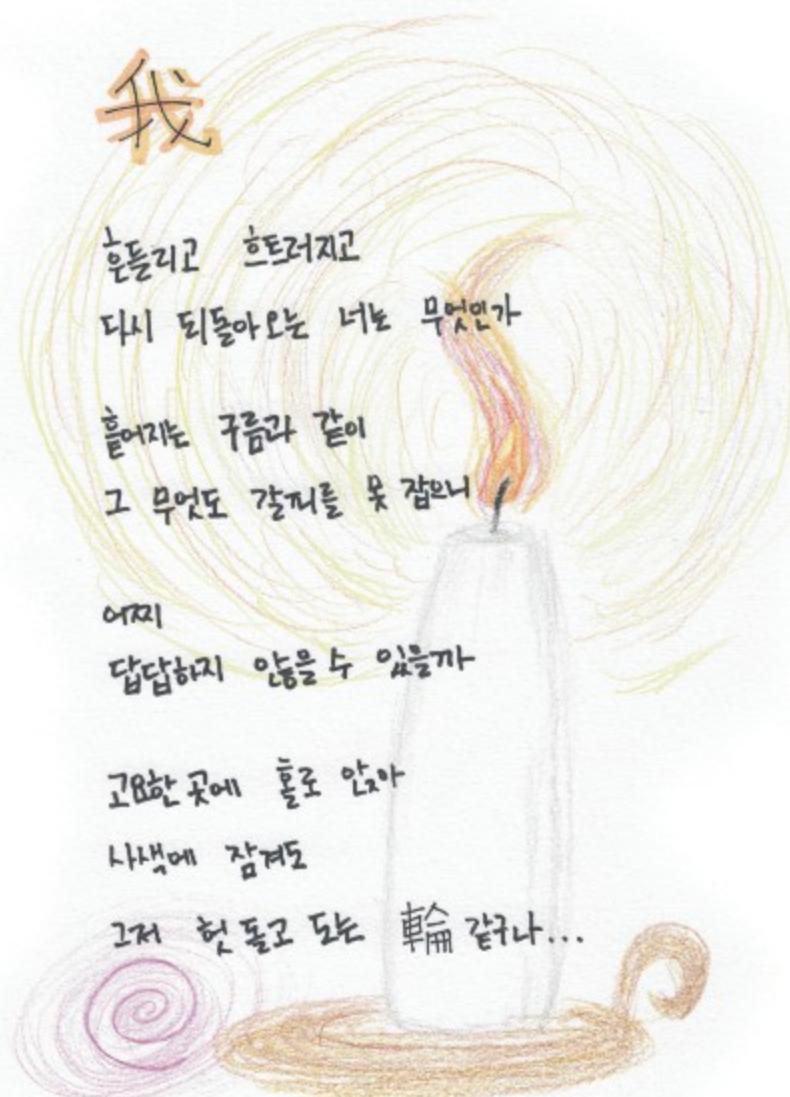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4) 정연, 「총국화엄사상 연구」, 조계종출판사, 2023, p.433

5) 청량정관, 『화엄경청량소』 제10권, 석반산 역주, 담앤북스, 2019, p.177

6) 청량정관이 참조한 부분은 세친의 『유식삼실송』 중 2,3,4구에 관한 『성유식론』의 논설로 이는 초능변식으로서 아뢰야식에 대한 10의문으로 정리된다. 10의문은, ①자상문(自相門:아뢰야식), ②과상문(果相門:이속식), ③인상문(因相門:일체종자식), ④소연문(所緣門:執受와 處), ⑤행상문(行相門:요법), ⑥상응문(相應門:족·작의·수·상·사), ⑦수구문(受俱門:捨受), ⑧3성문(三性門:무부무기성·족 등도 그러함), ⑨인과비유문(因果譬喻門:항상 폭류의 흐름처럼 유전함), ⑩복단위차문(伏斷位次門:아라한위이다). 흐름 등 지음, 『성유식론成唯識論』제2권, 현장 한역, 김묘주 번역,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pp. 78-79 / 583, 8단 10의문(八段 十義門)

7) 정연, 위의 책, p.435



사교과(3학년) 해탈함

출가는 곧 발심

- 반야암 지안 큰스님을
찾아뵙고 -

혜건 / 사교과(3학년)

여러모로 뜨거웠던 여름철을 뒤로 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지안 스님을 뵈려 우리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에 반야암으로 향했다. 통도사에서 반야암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는 무려 19개나 되는 암자들의 방향을 알려 주는 팻말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1만 5천 권 가량의 책들을 보관할 장소를 구하다가 인연이 모여 지어진 반야암, 습습한 날에 딱 필요했던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종이책보다 휴대폰이나 전자매체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우리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며 스님께서는 자연스레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다.

요새는 검색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색이 실종된 시대. 출가도 '여기가 편하나, 저길 잘까' 하면서 검색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3년까지도 행자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6개월 기간을 알고 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발심이 옛날처럼 잘 안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건 자연히 멀리하죠. 절집안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교의 승가라는 것은 대중이에요. 여럿이 어울려 사는 곳인데, 요즘은 선방에도 각방을 줘야 수좌들이 잘 온다고 하네요.

부처님 당시 승가의 모습을 아직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의 우수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방황하는 오늘날의 젊은 출가수행자들을 위해 해주시는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청정범행을 닦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다.

요즘 젊은 스님들 보면 우리 불교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승가가 세계에서 최고라 생각해요. 출가 의지가 선명하고, 비구·비구니로 종신토록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승가 대중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사처럼 공기 맑고 물 맑고 자연 그대로인 청정지역이 어디 또 있어요? 너무 자화자찬했나?

한국불교의 이런 훌륭한 면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나라 스님들 수행도 얼마나 잘해요? 한국 비구니계의 최고 어른이신 명성 스님도 그야말로 우리 종단의 보물이랄까, 나라의 보물이지요.

넘쳐흐르는 정보망 안에서 바쁜 법만을 골라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인들을 대표해 우리는 21세기의 출가생활 중 느끼는 점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는 직접 몸담고 계시던 강원의 모습을 말씀으로 생생히 펼쳐 보여주셨다.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강원의 생활과 요즘 학인들의 생활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신심이 참 깊었다 할까. 예를 들면 통도사는 큰법당 말고도 용화전, 극락전, 나한전 등 12법당이 있는데 그중 적어도 두세 법당에서는 저녁예불 후 다음날 새벽예불까지 목탁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재 일에는 설달 초하루부터 8일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견디는 것을 여사로 했더니까요. 우리끼리 반성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 정진의 정신이 점점 옛날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요즘 저희는 출가를 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을 다스릴 줄 모르고, 수행자로서의 근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심이 안 돼서 그렇지요. 출가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속적인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하니 출가와 모순되는 거지요. 불교 하면 공空, 그리고 무아無我 사상이잖아요. 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라는 자아의식(아상)에 불들려 있으니까 신심이 안 나죠. 공이 뭔지 관심도 없고,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이란 말을 들어도 헛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금강경오가해를 보면
야부송이 있죠.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데,
야부는 '여시' 두 글자를 두고 이렇게 읊었어요.

'여여如如, 정야장천일월고靜夜長天一月孤
시시是是, 수불리파파시수水不離波波是水
여라는 여는 고요한 밤하늘에 달이 홀로 비추고 있네.
시라는 시는 물이 파도를 떠나지 않고 파도가 그대로 이 물인 것이다.'

얼마나 멋진가요. 이거야말로 논리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도와 부딪힌 경계에서 설해진 말이랄까. 그래서 불교를 좀더 깊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배우면 희열이 솟아나고, 부처님이 가슴에 더욱 깊이 느껴지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탈종교시대에 접어들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낮아졌는데, 오히려 영성이라든지 정신에 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불교 안팎으로도 명상은 굉장히 상업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많이 피로해지고 사람들은 자기 비위에 안 맞는 개념에 잡히고 싶지 않아 해요.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증후군 현상인데요, 이는 시절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91년인가 우연히 여행 중 바티칸 교황청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32년 전인 그때 벌써 예비신부들이 큰방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주제가 '앞으로 탈종교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어요. 이제 우리는 종교가 사람을 이끌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출가한 사람, 발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승가가 점점 번창하거나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불교가 명상의 종교잖아요. 부처님 생애를 봐요. 룸비니 동산의 나무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셨고, 처음 설법과 열반에 드신 것도 나무 밑이지요. 나무 밑이라는 게 사색과 명상을 뜻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느 놈 때려죽일까?’ 하는 분노의 표출보다는 ‘인생이 뭔가?’ 하는 사색을 하겠죠.

요즘 재가수행자들이 운영하는 명상센터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지요. 수행을 좀 쉽게 해보자는 취지일 텐데, 서울 가는 데에 비행기, 기차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체험은 제일 많이 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불교의 전통은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익이 있는 길, 즉 출가수행이에요. 출가수행을 함으로써 승가가 존재하고요.

스님께서는 승가대학장, 역경위원장, 고시원장 등 다양한 이력을 거쳐 오셨고 지금은 반야암에서 인문학 특강,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외에도 해운대 포교당의 경전 강의를 통해서 광범위한 전법을 하고 계신데 그 다양한 일들을 어떤 원력으로 이루어나가고 계신지요?



원력이라 할 것까진 없지만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경 구절이 있지요. 비여암중보譬如暗中寶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수혜막능료受慧莫能了니라. 『화엄경』 「수미정상계찬품」에 나오죠. '비유하건데 어둠 속의 보배를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로우나 능히 알 수가 없느니나.'

이 사구계가 마음에 참 와닿아서 나도 남에게 불법을 많이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다보니 승가교육에 남보다 조금 오래 종사를 했어요. 스님들 교육을 39년 했네요,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칠 만하죠?

도반들끼리 이제 졸업하면 뭘 할지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옛날에는 졸업하면 당연히 선방으로 가는 게 우선시되어서 선방에 가기 위해 다 같이 법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소임 살아야 하는 스님들은 소임 살고 나서 가는 그런 방향성이 딱 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출가자가 적어지다 보니 집에 소임 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 진학해서 교학 쪽으로 뒤틀려받았으면 하는 윗사람의 압박을 느끼는 스님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둔 학인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본진심守本眞心이 제일정진第一精進이라. 본래의 참마음만 지키면 그것이 가장 으뜸가

는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선방 갈 형편이 되면 선방 가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면 돼요. 물론 과거부터 전통적인 선수행 위주의 기풍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을 나오면 선방 가서 정진하는 것이 잘사는 거라고 말해온 것도 있긴 하지요. 선방 갈 기회가 되면 좋지요. 하지만 중이 중노릇 잘 하려면 항복기심降伏其心 잘하면 되고 선용자심善用之心 잘하면 돼요. 항복기심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마음 항복시키라는 말이고, 선용자심은 어질고 착하게 진심眞心을 잘 쓰란 말이에요. 밝은 정신으로 비구니가 됐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은사 스님 간병을 하는 것도, 마당에 풀 뽑고 도량을 청소하는 것도 다 수행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학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까 한 말, 그 말이 핵심이에요. ‘중 됐으면 발심해라!’

제가 우리 은사 스님한테 계를 받고 인사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 됐으니, 금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중노릇 하라 하셨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절집안 현실에 불만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은사스님의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 줬지요. 내가 없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 자존심 내세워야 되고 내 체면 세워야 되잖아요. 하심하고 살면 체면도 없는 거예요. 단지 밝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면 돼요. No Problem! 중이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일 죽어도 그만이라고요.



운문사 문화부를 통해 이렇게 직접 큰스님을 찾아뵙고 나니 옛 학인들이 왜 그렇게 방학마다 선지식을 친견하기 위해 다녔는지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초심자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스님께서는 반복되는 질문에도 전혀 지치지 않고 자비로운 미소로 기쁨과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과도를 거스르려면 큰 힘이 들기 마련인데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그저 따라가게 된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흐트러져 간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밝은 마음으로 잘 살겠다고 스님께 다짐의 삼배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숙고를 해보았다. 금강경을 배울 때 넘치던 환희심은 어디로 가고, 대상을 바꿔 가며 분별심을 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발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처음 머리 깎았던 날 얼마나 신심이 넘쳤고 어떤 발심을 했었는지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 본다. ※

उत्तमः॥ईशावास्यमिदं च सर्वपरिं दिग्जगायं जगत्॥तेजानपत्रोत्पुर्णीभामाध्यः कस्यस्मिहते॥कुर्वन्तेवेदुक्तमारितिजीविषेक्षुताथ्यसमाः एवंत्वमिनान्यदेतोस्तिनकर्म विषयतेतरं श्वस्यप्याः नामैतेत्यो
काञ्चन्येनतप्रसादतः॥ताथ्यसेप्रेत्याभिग्रहेतिषयेवेचात्महत्तेजानाः च॥प्रनेत्रदेक्षमनसोनुवी
प्रजितेदेवाच्याप्यवन्यर्वमर्शीरतद्वावतोन्मातस्यलितिष्ठत्तेस्मलदोमातप्रवादस्थाति इतदेजातित
न्तेजातित **인도에서 뵈었던 세 분**

현진 / 본선사 법어연구소장

विद्वकविमनावापारम् खद्यम् प्रपातप्यतोर्धान्वयस्था औष्टवतीम्भः समाधः एवं अन्त
मः प्रविद्यानिदेव विद्यामुसतेततोर्धयद्वतेतमोपदुविद्याया अंतरतः र्था प्रन्यदेवाहर्विद्यवात्यस
हर्विद्यमाद्यतिष्ठुश्वमधीश्वायेनस्तदिच्छस्तिर्था १० विद्यां चाविद्यां चाविद्याचमस्तदेवा
मम एवं सहश्रविद्ययास्त्युतीर्चिविद्ययास्तमस्तु ते ११ अंधेतमः प्रविद्योतिष्ठेवसंहतिमूर्पा



서기 2000년에 접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난 그해, 출가한 절에선 어설픈 늦깎이란 눈칫밥으로 이제 절집안 장관 때가 뭔지나 알아먹었을 무렵에 은사스님의 허락을 얻어 10년을 한정하고 인도 공부길에 나서게 되었다. 어디 가서 뭘 공부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도 묻지 않으시고 '잘 다녀와!'라는 말씀 한 마디로 나를 놓아주셨을 때 돌아서며 갑자기 일었던 생각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막막함 그 자체였다. 그 덕분에 정말 마음껏 놀며 실컷 공부하다 올 수 있었지만…

그 첫 해의 반 년 동안은 아직 그곳에서 공부할 기본 여건인 언어(영어)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뭄바이 배후의 교육도시인 뿐네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되었다. 시중의 어학원이나 단체가 하는 연수가 아니라 당시 잠시 유행하던, 개인이 알음알이로 주선해주던 어학연수에 참여해서였는데, 그러다 보니 단기나 1년 단위로 모인 학생들 혹은 젊은 일반인들과 같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 한 연수생으로부터 들은 테레사 수녀와 관련된 일화는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있다.

그리니까 그로부터 약 10여 년 전, 그 연수생이 대학생일 때 친구와 함께 처음 도착한 뭄바이 공항에서 겪었다는 일화이다. 당시 공항의 국제선 중앙대합실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이 쉽게 보일 정도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 대합실 원편의 VIP 통로에 수행원을 대동한 한 연로한 수녀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잠시 그 주위로부터 웅성이던 소리가 물결처럼 전 대합실로 전달되더니 일순간에 서 있던 모든 인도인들이 몸을 숙였고, 심지

어 대합실 차가운 대
리석 바닥에 오체투
지를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분
은 당시 많이 연로한
몸으로 둠바이 행사
에 참석하신 테레사
수녀였는데, 우두커
니 멀뚱멀뚱 뛴 일인



지 신기해하며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외국인뿐이었다고 한다. 약간은 4차원의 성격이라는 그 연
수생의 친구는 수녀님에게 달려가다 수행원에게 황급히 제지당했는데, 수녀님의 배려로 결국
수행원들의 눈총을 받으며 손까지 잡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신기한 하나의 인도 이
야기로만 들렸었다. 인도에서 '스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전까진.

나름 반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원래의 계획에 따라 티베트어를 익히기 위해 다람살라로
옮겨 한 해 남짓 지냈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랐던 티베트어 공부에 이내 흥미를 잃고 그곳에 계
시던 스님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어학연수를 하던 뿐네로 돌아와 본격적인 산스크리뜨 공부
를, 거의 두 해를 허비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뿐네대학의 대학원 어학부 기초과정도 이
내 포기한 채 시작했던, 현직 혹은 퇴임 교수의 사사師事를 통한 공부였다. 마치 유럽의 눈 과관
학생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가나다라'부터 한국어를 배우듯이,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
했던 산스크리뜨 공부는 인도에서 만 10년을 채우고 완전히 귀국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점차
내 자신의 공부여력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교수님을 찾아서 나중에는 모두 세 분에게 사사를
받게 되었다. 인도 여학자의 기품을 보여주셨던 마더위 교수님, 인도
문학의 깊은 흥취를 알려 주셨던 랄레 교수님, 그리고 산스크리뜨
문법의 대가로서 많은 한국 제자를 두셨던 죄쉬 교수님.

“학자는 자기 학문을 돈으로 팔진 않습니다. 더욱이, 멀리
이국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공부한다고 매일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에게 어찌...”

교육도시 뿐네의 한 대학에서 수십 년째 진행 중인 산스
크리뜨 사전편찬 위원으로 계시던 마더위 교수님과 공부
를 시작한 지 한 달, 조그만 봉투를 내밀었을 때 하셨던 말
씀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도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
하기 직전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정
이 없으면 매일 아침 댁으로 찾아뵙고 산스크리뜨 철자



읽기부터 시작하여 산스크리트 독본의 기본으로 여긴다는 『빤짜딴뜨라』를 비롯한 몇몇 책들을 읽어내며 가르침을 주시는 내내 여학자로서의 모습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셨다.

첫 해엔 교수님과 매일 두 시간 정도 읽어낸 내용을 녹음기에 담아와 그것을 복습하고 다음날 읽을 내용을 예습하는 것만으로 온종일이 허비되었다. '산스크리트 공부는 복습을 통해 익혀야지, 예습으로 준비하려는 건 처음 시작하는 학인에겐 무리'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지만, 어학(영어) 실력이 부족해 잘 들리지 않는 녹음기와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한 분풀이 대상이 된 산스크리트 사전을 집어던지길 하루에도 수십 차례, 던진 사전이야 다시 주워 쓰면 되었지만 박살이 난 녹음기를 새로 사려 수차례 뿐네의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던 기억에 한동안 전자상가만 보면 고개가 절로 돌려졌다.

"산스크리트 문법?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한 달만 기다리세요. 나도 정리해두면 좋을테니, 문법을 전공하는 동료 교수에게 따로 배워서 알려드리리다."

철자 읽는 법만 익히고 바로 독본을 읽어가던 중, 도저히 진전이 없는 듯함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문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마더위 교수님께서 의외로 주신 답변이었다. 당신도 문법을 따로 익힌 기억이 없다고 하시며, 자연스레 많은 책을 읽다보니 문법을 익힐 만한 필요성도 그리 절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셨는데, 무엇보다 '나? 나는 그것 몰라! 필요하면 내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라는 말씀이 약간은 충격이었다. 대학 사전 편찬위원회 책임자로 십수 년째 계시는데 모르실 리 있겠는가? 특히 나 같은 초등생에겐 대충 아는 것만 들려 말씀하셨을 텐데. 결국 한 달 정도 지나서 깨알같이 정리하신 내용을 복사해주시며 약속을 지키셨다.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진정한 지혜智慧라던 어느 큰스님의 말씀이 그 당시엔 몇 차례 반추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금강경을 산스크리트본으로 정리해보고 난 후에야 내가 짐작하게 된, 인도의 지혜인 반야(般若, Prajñā : 눈앞에 두고 본 듯이 아는 것)는 산냐(相, Saññā : 뭉뚱그려 알아차림으로 아는 척하는 것)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란 것을, 정작 불교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며 공부내내 불교경전 읽기는 손사래만 치시던 가운데 보여주신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더욱 정확히 배우게 된 셈이다.

시일이 경과하여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한 분의 교수님을 더 찾아뵙고 새로운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인도 중부의 유수 대학의 문학대학장을 역임하고 퇴임해서 뿐네에 계신 랄레 교수님이었다. 교수님과는 인도정신의 정수로 간주되는 『바가바드 기타』를 시작으로, 인도 고



대철학의 집약서인『우빠니샤드』초기본 18책을 수년에 걸쳐 읽어내려갔다. 인도 브라만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폭넓은 학식 및 단지 읽어서 그치지 않고 인도철학과 문학에 대해 진한 '홍취'를 지니셨던 교수님 덕분에 간혹은 내가 한국의 불교승려가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난 브라만인 '브라흐마짜르야(Brahmacarya: 브라흐만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 같다고 느낀 적도 있을 정도로, 읽어가는 글 속으로 학인을 몰입시키는 분이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빠니샤드』를 읽을 때면 불교도로서의 날 선 비판의 시각 못지않게 정통 브라만으로서 지닐 수 있는 『우빠니샤드』에 대한 정견正見이라고 할 만한 생각들이 심심치 않게 생겨나곤 하였는데, 이 모두 교수님의 가르침 영향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브라만교가 이해되면 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또렷해지는 듯한 느낌은? 교수님과 했던 공부의 부작용인지, 순작용인지…

예전에 같이 어학연수를 했다가 현지에 생활터전을 잡은 몇몇 지인들과 함께 서해안의 고아 해변으로 나들이도 다닐 정도로 여유 아닌 여유가 생겼을 때 드디어 죄쉬 교수님과 독대獨對하여 책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갑자기 남방에서 온 스님들이 대거 귀국하였고 한국학생들도 제법 줄어든 일이 있었는데, 그 덕에 무려 3년 남짓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이었다. 평생을 올곧은 브라만 선비로서 사셨던 선생님은 젊었을 때 시력이 약해지면서부터 더욱 서책 독송에 집중하여 방대한 분량을 암기하고 계셨으니, 이미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던 그때 선생님과 재차 읽은 『바가바드 기타』와 18책의 『우빠니샤드』 정도는 첫 단락 한두 단어만 일리드려도 하루 읽을 분량을 미리 암송해내시곤 하셨다. 얼마 전 국내에 계시는 연로한 유가 선비 한분을 한 사형이 찾아뵈었다는데, 그 명성에 비해 서고가 너무 촉하여 그 연유를 여쭙자 "모름지기 선비라면 글을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지 하릴없이 책꽂이엔 왜…"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바른 길에 계신 학자라면 여기나 거기나 다름이 없는 듯하다.

선생님 댁 2층 서실에서 제법 큼지막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매주 거의 토요일까지 오후 2시간 가량을 몇 년 동안 혼자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를 몇몇 지인들은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부러움까지 받으며 선생님과 글을 읽어나가던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

에도 어눌한 말투로 꿩끙거리며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있으면 불편하신 눈을 끔뻑이시며 '애가 뭘 모를까? 왜 모를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 어찌지?'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한 표정으로 내가 어서 제자리를 찾길 기다리곤 하셨는데, 지금도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



을 그것도 바로 지척에서 수도 없이 뵈었었다. 글 배움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값진 그 ‘모습’을.

유가에서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였던가? 인도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스승의 모습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 존재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듯하다. 앞서 말한 테레사 수녀님 또한 인도인들에겐 위대한 스승이었기에 공항의 그런 모습이 전개되었던 셈이다. 그 이면엔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스승에 대한 지나친 존경으로 인한 폐단 또한 심심찮게 지적되기도 한다. 심지어 생중계 중 들통이 난 어느 교단 교주의 눈속임에도 정작 처분을 받은 것은 방송국의 담당 PD였을 뿐, 그의 가르침이 지속되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일도 있었다고 하니… 그럼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는 이들의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은 수천 년 인도문화를 이끌어온 큰 원동력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말에 자신을 일컬으며 높임말을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존재한다. 심지어 일국의 왕이나 나아가 황제라도 ‘짐’이라며 자신을 겸칭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선창할 테니 모두 따라하세요!’라는 말, 우리도 많이 들으며 키 오지 않았던가. 그것은 선생님이 자신을 존경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은연중에 심어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임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불교가 일어난 인도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어느 면으론 조금 지나치기까지 한 존경심. 어쩌면 이들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의미를 중국의 유가 선비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작, 우리는 어떤지?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분을 기억하며. ◎



현진 스님

중앙승가대학 역경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뿐나에서 산스크리뜨어와 빠알리어를 수학했다. 현재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역서로는 「중국정사조선멸국전」, 「산스크리뜨문법」, 「빠알리문법」, 「산스크리뜨 금강경 역해」, 「치문경훈」 등이 있다.

여름 법화삼매

해설 / 사미니과(1학년)

이번 여름방학은 몇몇 저희 반 도반 스님들과 함께 운문사에 남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판 하니 치문반이 여름방학 때 남은 것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기 바쁠 텐데 어찌 남을 생각을 다 했느냐며, 여러 차례 물으시는 어른 스님들로부터 깊고 따스한 눈빛을 한아름 받았습니다. 지난 봄방학 출타 때, 집은 편할 수 있지만 아직 중들이 열디 열은 저는 대중에 남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강원처럼 일정이 빽빽하지 않은지라 생활이 느슨해진 것도 있지만 자연과 대중을 그리워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쁘기로 이름난 운문사는 여름방학 때도 여러 일정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 도량참법 기도, 염불 교수사 스님의 염불특강, 학기부터 방학 중까지 내내 이어지던 『금강경』 기도, 백중, 또 마지막으로 6일간의 『법화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사집반 스님들과 함께한 『법화경』 기도와 통도사 참배였습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묘한 법의 연꽃 경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이 아름다운 제목을 은사 스님 절 법당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경전은 무슨 내용일까. 묘한 법이란 무엇일까. 왜 묘하다고 할까. 연꽃같이 묘하다는 것일까. 방학 때 남은 공덕일까요? 비로소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로전에서 옮겨 온 『법화경』 책들은 조금 오래되고 관리가 조금 아쉬웠던지 표지와 속지가 뚝뚝 분리되고 낱장들도 많이 튀어나와 있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테이프로 낱장들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다. 맨 뒷장을 슬쩍 펼쳐보니 ‘운문사 삼장원 구매일 93년도’라고 찍힌 도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독송되어 왔다고 생각하니 문득 뭉클해졌습니다.

영덕 학장 스님께서 기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시며 찬찬히 영험담부터 차례와 해제, 본품, 법화경 약간계 순으로 독송하는 법과 “실상~묘법연화경 제OO품”하고 시작하는 소위 ‘운문사 제[制]’도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주 스님께서 늘 하셨고 운문사 대대로 내려오는 운문사 독송법이라고 합니다. “독송이 너무 빠르다, 제가 맞지 않아 조화롭지 않다” 등등 학장 스님의 무섭기는 하지만 또 애정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걱정들을 들어가며, 우렁차게 연화와 같은 묘법을 도량 가득 울려 퍼뜨렸습니다.

여름 태풍 등으로 떨어진 나뭇잎과 무성한 풀들, 기도 전 오전에는 늘 비질과 풀 뽑기 울력이 있었습니다만 지칠 법도 한 제 몸과 마음은 기도를 하루 이를 해 나아갈수록 또렷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독송을 빨리 하지 못하는 편인 제가 신기하게도 『법화경』은 쭉쭉 읽히는 것이, 처음 읽는 것 같지 않고 익숙했습니다. 혹시 전생에 『법화경』을 읽은 공덕으로 이런 아름다운 도량에서 수학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유치한 망상도 잠시 해 보았습니다.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일승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법화경종요法華經宗要』에서 ‘(부처님께서는) 깊고도 드넓은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큰 일대사로 중생에게 진리를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고자, 즉 개시 오입開示悟入하시고자 이 경을 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수많은 방편설로 성문, 연각, 보살의 무리에 맞게 제도하셨지만 실상의 법은 일승으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또 경의 종지로써 ‘광대하고 매우 깊은 일승一乘의 참다운 모습, 즉 실상實相’이라고 하셨는데, 그 실상, 도대체 그 일승이란 무엇일까요?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쳐一歸何處,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처럼 삼승이 일불승으로 모여 나아간다면 그 일승이 무엇일까요?

원효 스님께서는 묘법에는 교묘巧妙, 승묘勝妙, 미묘微妙, 절묘絕妙, 네 가지의 뜻이 있고 연꽃은 꽃, 꽃술, 줄기, 열매,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특별히 미묘美妙하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법화경』이 4묘의 이치가 하나의 뜻이 합쳐져서 한 경이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습, 즉 실상을 보여주는 묘법의 연화가 모든 대중들의 마음속에 피어나서 언어로는 다할 수 없는 그 이치를 통연히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 마음도 청운추월晴雲秋月처럼

편집부



운문사의 새로운 보물이 될 역사문화관, 다 되어 갑니다



선열당이 꽉 들어찬 제52차 운문사 총동문회



제75차 동련 전국지도자연수회 –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가을 산행을 앞두고 주역밥을 만들어 이야기꽃 피는 후원



오곡백과로 풍선한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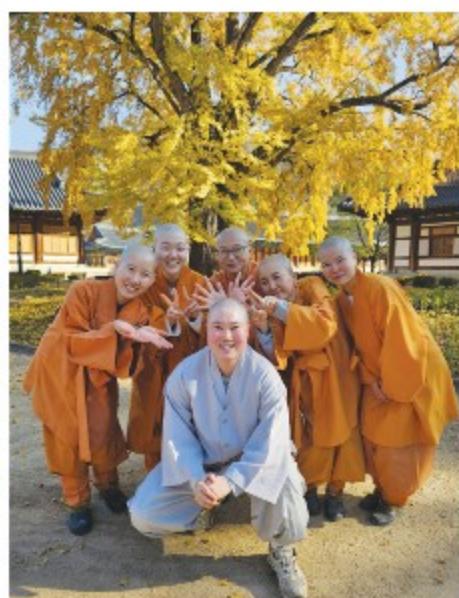
쿠시나가라 일반당에서 가사 공양을 올리는 화엄반 스님들



먹선으로 드러나는 선화^{禪畫}의 세계



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밭으시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을 축하하며

경운 / 사교과(3학년)



푸른 봄, 싱그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매화꽃처럼 우리 곁에 살포시 온 후배 스님들.
여름을 스쳐 벌써 달빛도 아스라한 겨우내 가을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치문반 스님들 안녕하신지요?

사미니계를 받고, 첫 수행 공간으로 전통 강원에 모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기만 합니다. 의제, 말과 행동, 먹는 것, 쉬고 자는 일까지... 이 공간과 시간 모두 모두 낯설기만 하지요. 봄, 여름, 이 가을 초입까지 잘 참고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좌식 경상에 앉아 '여래입열반如來入涅槃이 근삼천재近三千載라'로 시작하는 계송을 처음 들은 입선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또 처음 단단하고 복잡한 한문으로 쓰인 『치문경훈』과 『제경서문』을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은 한글과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문자였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상강례上講禮, 수업을 앞두고 미리 경경의 내용을 대해 서로 토론하는 논강論講, 그 후 교수 스님께 문강問講하는 고아하고 품격 있는 공부 예법과 방식은 어쩐지 부처님 당시 가르침을 설하신 회상과 닮지 않았는지요?

특히 오늘부터 스님들이 할 논강은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도반들과 토론하며 공부하는 강원

의 자랑스런 전통교습 방법입니다. 이 논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알아가고 또 수행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기에 운문사 모든 대중이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겠죠?

논강에는 몇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과 교재를 뒤적이며 난자와 내용을 더듬더듬 새기고 스스로 지혜의 말씀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쪼고 쫄리는’ 즐거움입니다. 논강자는 모르는 내용을 묻지 않을까, 혹은 찾지 못한 난자를 물으면 안 되는데, 하며 조마조마해 하는 것과, 나머지 도반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질문하는 짓궂은 재미가 있습니다. 또 착착착!! 신나게 강통講桶을 흔들고, 다음 발기發起 및 중강仲講 담당자를 속시원하게 발표하는 마지막 즐거움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치문반 스님들도 새롭게 알아갈 기분 좋은 설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바쁜 일상, 사람과의 경계, 시끄러운 여러 감정에 휩쓸려 공부가 소홀해지는 마음이 생겨나면 경건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또 설렘으로 경전을 처음 열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심 수행자로서 배움의 자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배운 공부가 그대로 수행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문의 한 변뿐인 사미니 시절을 찬란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사미니답게 열심히 공부와 수행이란 두 바퀴를 잘 굴려 굴려 가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



〈용어 풀이〉

상강례上講禮: 공부에 앞서 부처님께 올리는 예식

논강論講: 수업에 들어가기 전 경의 뜻을 미리 토론하는 것

문강問講: 논강을 하고 난 다음 교수 스님께 의문 나는 것을 묻는 것

강통講桶: 산가지가 들어 있는 통으로, 다음 논강자를 뽑는 데 쓰는 통(산통算筒이라고도 부름)

발기發起: 학인들이 경전의 뜻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경전을 읽는 것

중강仲講: 논강 중 도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사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해인 / 사미니과(1학년)



解
海印

심화_4학년 진하

사계절은 지내보자며 왔던 강원에서 벌써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경전공부에 발을 들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치문반 도반 스님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복덕이 부족한 제가 이 수려한 호거산에 둘러싸인 운문사까지 올 수 있게 해 준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보살님 손에 이끌려서 절에 다닌 것이 인연이 되었을까요. 막연하게 스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치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듯이 성년이 되던 해에 난치병 선고를 받으며 꿈을 접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절에는 완전히 발을 끊어버렸지만 책과 법문 등으로 위로하며 치료와 사회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절인연이 찾아온 것일까요. 어느 선지식과의 대담 중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돈과 물질을 쫓아다니며 먹고 자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취모리로 머리카락이 베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겠구나. 참회의 절을 해서 모두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여 내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동진출가하자’라는 원을 세우고 하안거 동안 매일 천배씩 백일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혼신을 바쳐 정진하다가 설령 죽게 되거나 지극한 곤경에 빠지거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읽었던 법장 스님의 발원문입니다. 저는 육체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절에 가서는 제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다리의 고통과 서러움에 울며 천배를 겨우 마치고 냇이 나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생도 아닌 내생의 꿈 때문에 힘든 기도를 하냐는 주변의 비웃음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후에 좌절했다가 새벽이 되면 첫차로 절에 가서 법당 청소를 하고 절기도 후 사시예불에 참석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승도 도반도 없이 매일 같은 일정과 장소, 자의 반 타의 반의 묵언, 하루 한 끼의 부실한 공양, 도무지 변화라고는 없는 단순한 생활, 마음은 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신심이 하늘까지 뻗쳐서 힘이 넘치다가, 다음날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 같은 자괴감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간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백일, 회향날이 되었고, 방생과 선방 문고리까지 잡게 되며 무사히 회향을 했습니다.

그 후 자신감을 얻은 저는 3년 동안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친배씩 백일기도를 하였고, 좋은 인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회향하던 3년째에 우연히 들른 절에서 출가하여 운문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자유인을 꿈꾸며 힘들게 한 출가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반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새벽 4시 기상, 세 번의 예불과 공양, 수업과 입선과 올력, 옷과 신발 작은 것 하나에도 변화가 허락되지 않는 반복되는 생활. 그럼에도 익숙해지지 않아 경책을 들으며 과연 4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면 저는 출가 전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를 떠올리면 몸에서 다시 신심이 솟아나며 또 한 번 일어서게 됩니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대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흔히 정진이라 하면 장좌불와와 같은 힘든 수행을 떠올리지만 정진은 선한 가치가 있는 행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매일 108배, 발우공양, 입선, 독송 등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강원의 생활 자체가 수행이고 이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 정진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수행력이 약한 저는 늘 한결같지 못하고 혼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한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 나 자신을 만드는 토양이 된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 지금의 일상이 다람쥐 챇바퀴처럼 지루하고 나 자신을 누르는 힘겨운 생활일지라도 살아 있는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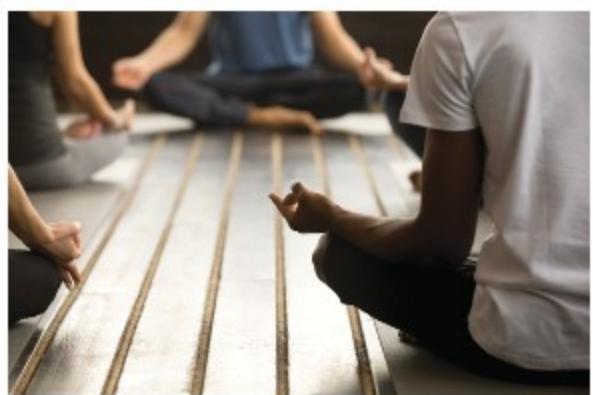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 한 철을 보내면 사집이 되어 아랫반을 지도하는 부천副殿반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상반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의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행무상이라, 매서운 겨울의 시간을 견디하고 묵묵히 견뎌낸다면, 봄에 새순이 돋듯 의젓한 사집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많은 신장님과 불보살님께서 외호하시는 운문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의 동불로 삼아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꼭꼭 씹어먹듯이 알차게 보낸다면, 3년 후엔 치문반도 여법한 운문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

생生과 사死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태감 / 한문불전대학원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오늘 날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주제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금기 사항인 경우가 많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장 단계를 강요받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고착되는 추세다.

죽음은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차원을 포괄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잊지 못할 다양한 추억들이 각자의 가슴에 담겨 숨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는 행복과 불행, 그리고 웃음과 슬픔의 눈물이 매 순간 살아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다가 임종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날 때 비로소 느끼지만, 죽음을 겪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준비 없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우왕좌왕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체험과 고민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다면, 죽음을 ‘삶의 끝’이라기보다는 톨스토이의 격언처럼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의미하고 있으며, 품위 있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웰다잉well-dying’의 뜻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으로 삶 자체를 ‘웰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 즉 인간의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등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자아존중감도 달라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웰다잉 법’이 오늘날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웰다잉 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통을 덜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 환자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웰다잉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남아 있는 삶을 병원에서 고통과 후회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나눌 수 있다.





살아 온 길을 돌아보며 혼자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준비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고통을 끝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평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밝혀두어야 화생 가능성이 없을 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성찰은 바로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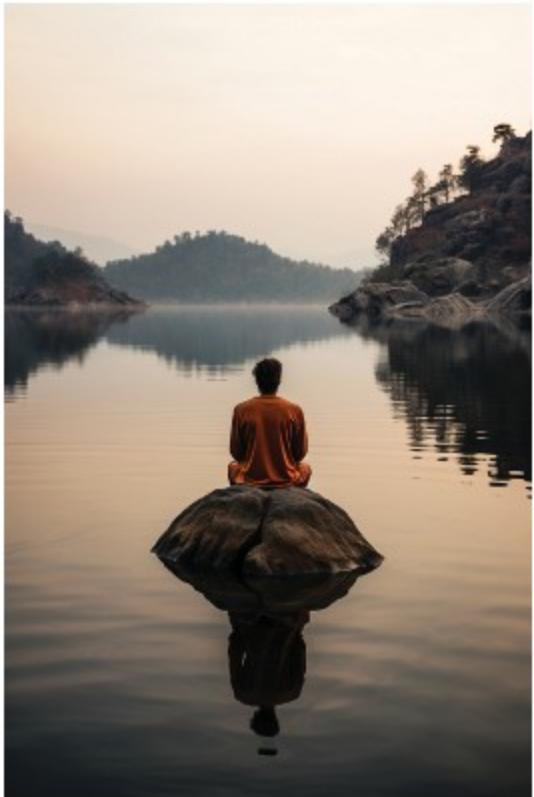
신이 배제된 성찰은 진정성이 결여된 괴상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 숨 쉴, 삶의 축복 이자 기회를 얻은 셈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한다. 칠레의 시인이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파블로 네루다의 시구를 떠올려 본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시인은 '나였던 그 아이'를 잊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주체로 살아보기를 권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적인 삶인 것이다. 모두에게 유한성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주저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서도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불교의 『아함경』, 봉다의 죽음에 비추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열반경』을 비롯해, 부파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 까지 제반의 불교사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곳곳에 있다. 초기의 『열반경』은 석존의 입멸 전후 사건과 입멸시의 가르침을 다루는데, 이는 대승에 접어들어 봉다의 입멸을 통해 불멸不滅을 보고 무상無常에서 상상을 알며 그곳에서 불멸의 봉다를 찾는 내용으로 발전한다.

열반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과정을 통해 불교적인 좋은 죽음은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불교적 죽음 준비교육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임종 준비를 비롯하여 타인의 임종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지원의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성장과 인간의 잠재력 발달에 중요하며, 바른 죽음을 수용하고 각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연결된다. 행복한 죽음이란 결국 행복한 삶의 마무리이다. 행복한 삶과 행복한 죽음을 위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결정적이며, 죽음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방식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고찰考察을 해야 하는 것은 선한 씨앗의 힘과 결실의 힘, 뉘우침의 힘, 발원의 힘, 익숙함의 힘이다. 이 의지의 힘은 매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법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임종시에 그 힘으로 마지막 여정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



절대성과 상대성, 양변을 여읜 중도로서의 계율

영원 / 대교과(4학년)

“계의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뜬다.”

대중 스님들께 여쭙니다.

온전한 계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계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계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절대성과 상대성, 양변을 여읜 중도로서의 계율.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영원입니다.

출가를 하기 전에는 5계와 더불어 음식에 관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좌선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자 때 엄격하게 음식을 가렸던 도반이 다른 행자들과 갈등이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자 수계교육에서 보살계를 받고 나서는 왜 음식을 가리는 스님들이 음식 가리지 않는 스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강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데바닷다가 5법을 제시하며 ‘엄격한’ 계율제정을 주장했고, 후래에 인도에 제바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율과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여러 부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스님들과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스님들로 나뉜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계율, 선정, 지혜를 설명하시면서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라며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또한 계·정·혜도 세우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 안에는 이유 모를 답답함이 쌓여 갔습니다. 그 답답함의 원인도, 대상도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떤 텍스트를 봐야 저의 궁금증이 명확해질지, 해결이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답이 없던 계율에 대한 산발적인 답답함이 화엄반 봄철에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바라이’ 그리고 ‘파계’, ‘단두죄’ 등의 계율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부분과 ‘상황에 따라 개차開遮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시대,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계율의 상대적인 부분. 이들이 충돌하면서 제 안에 계율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이들이 충돌하면서 제 안에 계율을 경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계율에 대한 상대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상황에 따라 계율을 개차할 수 있다는 점은 곧 계율정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유동성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부처님 열반 후 율과 법에 대한 최초결집에서도 있었습니다.

왕사성 결집이 끝나갈 무렵 아난 존자께서 갑자기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승단이 원한다면 소소계는 벼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를 들은 장로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너는 부처님께 소소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느냐?” 하고 아난에게 물었고, 아난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소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라한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함부로 소소계의 내용을 정할 수 없었고, 결국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소소계에 관한 논쟁.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저희는 계율을 지범개차持犯開遮할 때 오류를 범할 조그마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계율의 현대적 해석으로 문제가 되었던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태국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담배를 피웠었는데, 그 이유가 율장에 출가수행자의 흡연에 대한 특별한 조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로 대중화함을 깨뜨린다는 유팡정신에 의해서 금연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대한민국 출가승려의 오후불식과 육식에 관한 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존경받는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음욕과 식욕에 관한 절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좌부 계통의 유팡에서는 삼정육은 육식이 가능하지만 일종식, 오후불식을 강조하고 있고, 대승보살계에서는 오신채와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계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저희는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공부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을 바탕으로 계율을 취사선택하거나 주변의 예시를 무차별적으로 보고 배운다면 초발심자들의 견고하고 청정해야 하는 계체戒體가 혹여 온전치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계율 문자 그대로의 지범이 아닌 계율제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율정신을 바탕으로 지범개차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담배를 피웠던 남방의 수행자들에게도 유팡에는 조문이 없지만, 계율정신에 의하면 수행자는 탐진치의 중독에서 벗어나 근원, 즉 부처로 돌아가고자 수행을 하는 자들인데, 하물며 담배에 중독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율은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좌부, 대승 등의 계율서도 다양하거나 부처님 당시의 상황과 현대한민국의 승려 생활과는 맞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들로 인해 초발심자인 저희들이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사유 그리고 계율을 바탕으로 한 바른 수행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원효대사는 「보살계본지법요기」를 통해 '보살계는 흐름을 거슬러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커다란 나루이고, 삿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긴요한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면보다는 계율의 근본정신을 강조합니다. 바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계율해석입니다. 원효대사의 계율관에 의하면 계율은 이 일심一心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일심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계율의 양극단 사이에서 일심을 바탕으로 계율해석을 할 경우 절대성에 대한 집착을 파할 수 있고, 칠저한 계율정신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지법개차를 할 경우 상대성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계율관에서 보았듯이 계율은 우리의 일심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일심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계율이라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암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욕락에 물들고 물신풍조가 만연하였다 하더라도 출가인의 삶은 출가자다운 청빈과 절제를 유지해야 수행의 근간이 유지되고 인천의 사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수행의 근간이 유지되고 세간의 귀의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둘째도 계율이 제대로 수지되어야 한다. 청정계율이 무너진 승가는 더 이상 중생의 복전이 될 수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대중 스님들께 여쭙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



두려워하지 않는 힘

– 힘이 필요할 때 읽는 스님의 문장 –

제법 / 한문불전대학원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께서 담양 용홍사 몽성선원 개원 뒤 당시 수행자로서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새벽에 불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정진을 다짐하는 결심으로 10년간 써 내려간 많은 글 중 90여 편을 염선하여 세상에 나온 책이다.

책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편 한 편 읽어 보면 아실 테지만 그리 흥미로운 글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스로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면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 주며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얻는 것, 마음을 비우고 편안해지는 것 등과 같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해 주고 있다.

나폴레옹은 평생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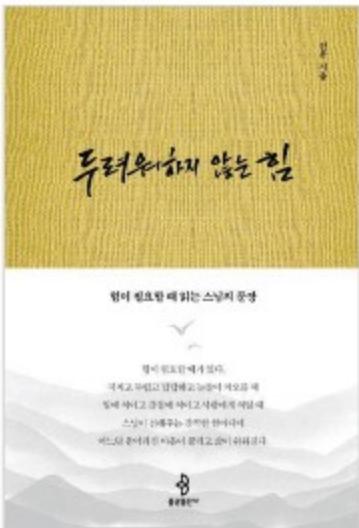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을 못 해도

평생 행복했다고 한다.

가장 어리석은 착각은 행복의 조건을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만족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불행을 안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행복할 겨를이 없는 것이며, 마음 밖에서 아

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먼저 고치지 않고서는 마음 밖의 조건은 쓸모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깨우친 이는 헨렌 켈러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마음 밖의 조건에 함몰되어 정신없이 사는 이는 나폴레옹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들이 모두 짧고 간결한 운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장들을 뒷받침하여 풀이해 주는 형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마치 스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처럼 어렵지 않고 따분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그 짧고 간결한 글에서 전달되는 울림은 다소 깊으며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는다. 마음속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다시금 평정심을 찾고 마음이 풀리며 앞으로의 삶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편안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책의 제목 아래는 작은 글씨로 '힘이 필요할 때 읽는 스님의 문장'이라고 적혀 있다. 지금 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용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

흔탁한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다, 말세야.” 일상적인 사고에서 이 말 세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시대를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심 불가득 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 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 未來心不可得.



소위 ‘말세론’에 익숙해진 세상이다. 갖은 재해가 지구를 뒤덮은 오늘날 이 ‘말세’의 징후를 찾기란 아주 쉬워서, 이를 한탄하는 목소리는 주기적으로 소환된다. 계절이 사라지고 이상 기후가 극성을 부릴 때, 국가와 개인의 기상천외한 범죄가 보도될 때, 전염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때,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는 평가는 실시간으로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에서도 말세의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 『보살선계경菩薩戒經』에는 중생의 세간에 관하여 오타악세五濁惡世의 개념이 등장한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명탁命濁), 윤리관념이 땅에 떨어지고(중생탁衆生濁), 번뇌가 치성하고(번뇌탁煩惱濁), 사견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견탁見濁), 기근·역병·전쟁의 환란이 발생하는(겁탁劫濁) 것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탁함’은 그 징후를 찾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그리하여 말세가 도래했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도 적합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이 가운데 명탁은 갈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오늘날 적당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겁탁의 재해인 코로나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스러지는 생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납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땅의 수행풍토에 답이 안 보일 때, 수행자들의 근기를 탓하고자 할 때, 원하는 선지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일 전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시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동원된다. “아이고, 말세여라” 한 마디면 얼마

나 손쉽고 깔끔하게 생각의 타래가 정리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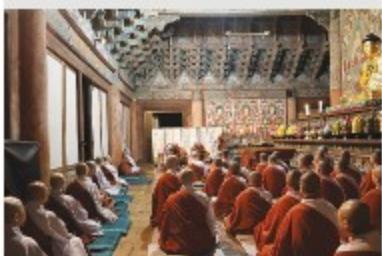
이렇듯 자꾸만 과거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 심리학에서는 '좋았던 옛날 편향(good-old-days bias)'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어 있다.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 지나가 버린 시절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장밋빛 회상을 가리킨다. 이때 편향은 개인이 올바른 사고를 통해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인지적 오류, 합정을 뜻한다. 옛날이 좋았다는 대명제가 확립되는 순간 과거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관념 속의 세계로만 존재하게 되며, 그 '예전'에 비해 지금이 한층 더 꽉꽉한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을 존속시키는 무한한 동력을 제공한다.

마땅히 기준이라 생각했던 관념들을 위협하는 젊은이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요즘 세대는 OO하다'의 다양한 변주도 그 일환이다. 이는 비슷한 연령 집단에 속하는 이들끼리, 또는 다른 세대 간의 대화에서조차 아직도 저극히 일상화된 형태로 드러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미세한 도발(microaggression)로 기능한다. 물론 발화자는 보통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나, '나' 와 '그들' 을 구분짓는 행위는 그와는 관계없이 심중팔구 하나의 효과로 귀결된다.

변화에 대한 반감은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것일까?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에는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두 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는 누구나 웃음을 지울 법한 대목이 등장한다. 인류가 유사 아래로 과거를 신격화하고 현재를 폄하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비슷한 말을 반복해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약 없이 뻗어 나가는 생각을 갈무리하여 '내가 아는 것과 다르구나' 에서 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세론에 하나의 순기능이 있다면, 바로 연기법을 통감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고정 변수는 변화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 저것이 없다는 진리.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애착이 저극한 이들을 특정 커피 메뉴를 빗대어 회화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부처님이 안 계셔서, 정법이 쇠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전해지지 않아서 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세를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거짓 예언으로 굴레를 덧씌우는 비생산적인 행위이다. 내가 말세론에 편승하여 이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구조적 편견과 혐오, 차별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부처님 한 분에, '올바른' 법이라는 상에 얹매여 바로 나의 곁에 계신 부처님들과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법음法音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⑥

운문소식



- 9월 8일 가을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0일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가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5일 가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6일 허만숙 교수님의 선화수업이 전향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9월 17일 법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8일 연양 자재병원의 간월사 낙성식에 화엄반 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9일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이며 승가대학 강주이신 용학 스님의 「입법 계품」 특강이 선열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9월 2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시행된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이른 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9월 29일 조계종 어산종장이신 동환 스님의 조계종단 표준 우리말 의해 염불 시연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5일 추석 다례제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7일 학인 스님들이 추석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7일 지금은 故인이 되신 김성철 교수님의 『구사론』 특강이 2박 3일 간 선 열당에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극랑왕생을 발원드립니다.
- 10월 8일 동화사에서 열린 승시 축제에 영덕 학장 스님의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0일 치문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제52회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제27회 졸업생 석우 스님이 동문회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모교발전을 위한 토론 및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10월 13일 회주 명성 스님을 모시고 총도감 송운 교수 스님의 수고 하에 운문사 역사문화관 상량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10월 14일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법사 스님: 화엄반 대겸, 영원, 원경 스님, 사교반 도술 스님, 치문반 해인 스님)
-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원 상주교수 연찬회에 교수 스님들(일진, 원묘, 영덕, 은광, 원법, 동우, 동호)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8일 화엄반 스님들의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 무장부애를 발원하는 신종기도가 비로전에서 3일 간 있었습니다.
- 10월 21일 불암사에서 있었던 일면장학금 수여식에 사진반 진성, 서현 스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2일 화엄반 스님들이 송운 교수 스님의 인솔하에 14박 15일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1월 5일
- 10월 23일 다례제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5일 9박 10일 동안 가을철 휴강이 있었습니다.
~11월 3일 대학원 스님들이 5박 6일 간 제주도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28일 제11회 범륜비구니장학금 수여식이 육화당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4~5일 은행나무 개방을 하였습니다.
- 11월 11일 황룡원에서 열린 1박 2일 동련전국지도자연수에 학인 스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2일
- 11월 26일 가을철 종강일이었습니다.
- 11월 27일 가을철 마지막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7일 동안거 결제 제사가 비로전에서, 겨울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조서영 • 심송자 • 하옥희 • 이정숙 • 김성옥 • 정해옥 • 이상덕
• 최희영 • 김정미 • 송재강 • 봇다선원 법등(김인태) • 김현주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010-7403-7118
①이전 주소, ②바뀐 주소, ③수령인, ④부수



조사전 다례제

운문사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구중일九重日에 조영당에 모셔진 원광국사를 비롯한 11분의 조사 스님들과 김식희, 손궁훈 두 장군님을 위한 제사를 모시고 있다. 두 장군님의 후손인 강릉 김씨, 밀양 손씨 문중에서도 제사 의식을 함께한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24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편입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3×4)

모 집 기 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전 형 방 법 추후공지(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주지 진성·율주 일진·학장 영덕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4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전 형 방 법 추후공지(종무소로 문의)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주지 진성·보현율원 율주 일진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65호·2023년 12월 12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비-01008·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편집장·대咎·편집위원·대咎, 해건·사진·편집부·표지사진·대咎·편집디자인·디자인미루 (053)426-3395